

### 전북농협, 상반기 농·축협 동시채용 합격증 교부식 가져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지난 21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 상반기 농·축협 동시채용 최종합격자 42명에 대한 합격증 교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농·축협 채용은 지난 4월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6월 1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신규채용은 전북 도내 연고자에 한해서 입사지원이 가능토록 해 전원 지역인재를 채용했다.

교부식에는 전북지역본부 간부들이 모두 참석하여 합격자들에게 농업 배지를 직접 달아주며 축하와 격려의 자리가 이어졌다.

또한, 농협의 근본적인 존립목적과 경영이념을 이해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농협의 정체성과 가치를 배우는 이념교육을 진행하는 등 희망 나이의 시간을 가졌다.

유재도 본부장은 "열정과 혁신으로 농업·농촌을 새롭게 변화시켜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드는데 함께 해줄 것"을 당부하며 합격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농협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에 앞장서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 농협고창군지부, 축제장 찾아 일손 돕기 지원

농협고창군지부(지부장 이문식)와 지역본부 상호금융지원단 직원 10여명은 지난 21일 고창북분자와 수박축제 행사장을 찾아 고창 황토배기-G수박 농업인 직거래행사에 일손 돕기 등 지원을 했다.

고창북분자와 수박축제(위원장 농협고창군지부 이문식 지부장)는 올해 16회를 맞아 21일부터 23일까지 선운산도립공원 생태숲 일원에서 개최됐다.

매년 축제기간 중 고창황토배기-G수박 공선출회, 고창애플수박작목반 등 고창군 지역을 대표하는 수박재배 선도조직의 농가들이 축제의 직

거래행사에 참여해 행사기간 중 직접 재배한 고창수박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약 3억원의 판매고를 기록하는 등 고창의 대표적인 농산물축제의 장으로 그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문식 지부장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 유네스코 정청지역 고창에서 북분자와 수박축제가 개최된다"며, "마당극, 수박·북분자 이벤트 등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준비된 축제에 이동집포 차량, 행사지원 등 지역과 함께하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aT, 양파 수출 확대 위한 수확 현장 점검 실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신선농 식품수출이사는 가격하락이 우려되는 양파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확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지난 20일 주요 양파 생산지 중 하나인 전남 해남지역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선농 이사는 전남 해남의 양파 생산지 상황을 점검하고 해남 현안농협 관계자와 농업인들로부터 양파작황 및 출하 동향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신선농 이사는 "양파 생산 과잉에 대응하여 농식품부와 함께 생산자, 수출업체, 지자체의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마케팅과 바이어 알선 등 해외 수출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며,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말레이시아 박람회 양파 홍보부스를 운영하느 등 주 수출국인 대만과 동남아에



현장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파와 함께 양파원료를 활용한 가공식품 수출을 알선하는 등 해외시장의 실질적인 바이어 발굴로 수출 증대를 통해 양파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LX공간정보아카데미가 지난 2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패를 받았다.

## 양질의 교육 받은 전문 인력 배출 '쑥쑥'

### LX공간정보아카데미, 국가훈련평가 최우수 쾌거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 국토정보교육원 소속 공간정보아카데미가(원장 김진수) 정부로부터 최우수 훈련기관으로 인정받았다.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 올해 최우수 등급을 달성해 지난 2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우수기관 선정패를 받았다.

평가에서 공간정보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만족도와 훈련시설, 장비 등 인프라 구축 활용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협약기업 훈련참여율과 채용예정자과정 운영 부분에서는 최고점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LX는 지난 2014년부터 공간정보산업 분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강남구 논

현동에 교육 전문 인력과 첨단시설을 갖추고 '공간정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으로 운영되는 공간정보아카데미는 공간정보 관련 중소기업과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협약기업에는 안정적인 인력공급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김진수 원장은 "공간정보 관련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역량강화와 지속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LX는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경험을 갖춘 신규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간정보아카데미는 그간 매년 500명 이상 재직자향상과정을 통해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을 배출해 왔다.

한편, '채용예정자과정'을 통해 공간정보 관련분야의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배출해 지금까지 관련업체에 90%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전북농관원-남부시장 업무협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은 지난 21일 사단법인 전주남부시장 상인회(회장 하현수)와 원산지 표시 자율기반 구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전북농관원 정수경 지원장, 남부시장 상인회 하현수 회장, 전북농관원과 남부시장 상인회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은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원산지 표시제 교육, 홍보 협조 등 원산지 표시 자율기반 구축과 전

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전북농관원과 남부시장은 협약체결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으로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시장 환경 조성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상인과 만민의 날 및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고 매일 시장상인 대상 1:1 원산지 표시지도·홍보를 통해 남부시장이 전국에서 가장 원산지 표시율이 높은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용의 확대와 홍보에도 다같이 노력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전북농협·농촌현장지원단, 취약농가 주거환경 지원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 정읍시지부(지부장 조천형), 황토현농협(조합장 김재기), 농촌현장지원단은 지난 21일 정읍시 소성면, 고부면, 입암면, 영원면에 거주하는 돌봄 대상자 어르신 5곳에 노후 된 도배, 장판 및 파손된 처마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다.

봉사활동은 주택의 노후화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께서 농업인 행복콜센터로 상담·접수하여 현장지원단의 실사를 통해 지원을 결정하여 지역본부, 정읍시지부, 황토현농협, 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에서 지역 도배·장판 업체와 자원봉사자 등의 참여로 진행됐다.

'농업인행복콜센터'는 (사)농촌사랑

법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고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고령농업인 전용 콜센터로 2018년 3월부터 '농촌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돌봄 어르신 중 취약농가를 선정하여 종합전문상담사의 말벗서비스 등 정서적 위로는 물론 지역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도배, 장판, 페인트 등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이나 생필품을 지원하는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이다.

유재도 본부장은 "농업인행복콜센터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고령농업인들이 손쉽게 생활 불편 사항을 요청하고 요청 사항에 농촌현장지원단들이 즉각 반응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